

◎ 世界經濟 **油價對應으로 交易伸張 期待難**

裴 光 宣

〈産業研究院 動向分析室長·經博〉

1. 油價의 움직임과 世界經濟에 미치는 영향

1) 油價動向 및 展望

지난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侵攻事態 이후 國際油價는 전쟁발발의 긴장과 평화적인 해결전망이 교차함에 따라 큰 폭의 騰落을 거듭하며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왔다.

특히 UN의 禁輸措置結果 이라크와 쿠웨이트産 原油輸出(하루 약 4백만 배럴)이 중단되자 油價는 일제히 폭등, 北海産 브렌트油의 경우 한때 지난 79년 2次 石油波動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42달러선을 기록하는 등 페르시아만사태 직전의 21달러 수준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적도 있다.

그러나 8월말 원유의 급격한 需給不均衡에 대처하기 위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OPEC 회원국들이 원유생산을 늘리기로 잠정합의, 사우디가 과거 하루 530만 배럴에서 820만 배럴로 增産하는 등 최근 OPEC 전체의 하루 생산량은 2,270만 배럴에 달해 지난 7월 26일 OPEC 총회에서 정한 산유 키퍼량 2,250만 배럴보다 20만 배럴 정도 초과 생산함으로써 수급사정이 점차 호전됨에 따라 최근의 國際油價는 배럴당 3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수급사정이 크게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전쟁발발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현

재와 같은 교착상태에서 國際油價는 최근의 움직임과 같이 西部텍사스 中質油(WTI) 기준 배럴당 30달러 内外(중동 Dubai油 기준 25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교착상태는 이라크의 식량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70~80%에 달하고 그밖에 工業用原料 등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정유 시설 등 대부분의 工場稼動率이 크게 저하, 産業生産力이 한계에 달하는 등 상황이 급박해짐에 따라 늦어도 내년봄까지는 전쟁에 의해서든 평화적인 협상에 의해서든 페르시아만사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 사태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된다면 91년의 國際油價는 대체로 배럴당 21~25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로 금년 7월 OPEC 총회에서 결정된 基準油價는 종전의 18달러보다 3달러 인상된 배럴당 21달러였음).

다만 전쟁이 발발하여 사우디 등의 油田이 크게 파괴될 경우 油價는 일시적으로 50~60달러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 世界經濟에 미치는 영향

지난 86년 이후 배럴당 15달러 내외(OPEC 油價 平均基準)에 머물렀던 國際油價는 비록 이번 페르시아만사태가 내년 초를 전후하여 해결된다 하더라도 배럴당 2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低油價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금년을 低點으로 하여 내년 이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던 世界經濟는 이번 油價上昇의 영향으로 회복의 시기가 늦어지고 그 정도가 약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전망한 것처럼 국제유가는 내년부터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페르시아만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1·2次 石油波動期에 비해서는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① 당시보다 낮은 油價上昇率 ② 代替 에너지개발에 의한 낮은 석유의존도 ③ 産業構造調整과 에너지 効率의 향상에 의한 석유소비감소 ④ 선진각국의 충분한 석유비축 ⑤ 두차레의 오일 쇼크를 겪은 경험에 의한 政策對應 등을 들 수 있다.

페르시아만사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석유의존도와 油價上昇 이전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것이나 대체로 石油純輸入 先進國經濟가 받는 영향은 실질소득의 감소, 인플레이율과 期待인플레이율의 상승에 따르는 이자율 상승, 그에 따른 成長鈍化와 株價下落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國際油價가 단기적으로 약 50% 상승할 경우 선진 주요국의 經濟成長은 약 0.5% 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消費者物價는 1~1.5% 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世界經濟 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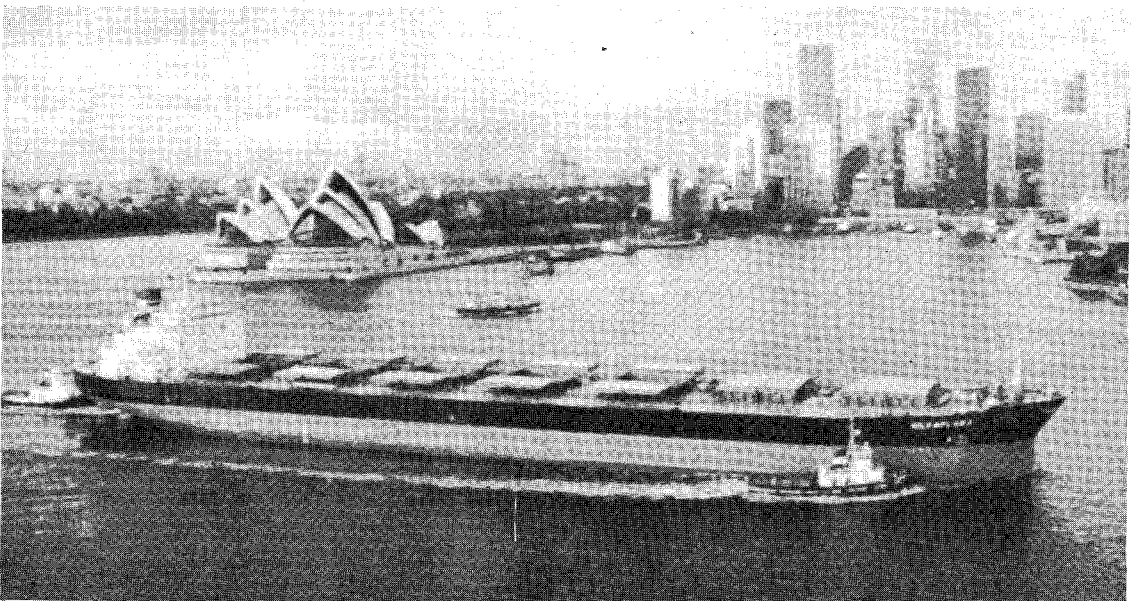
### 1) 成長 및 物價

당초 세계경제는 軟着陸(soft-landing)에 성공함에 따라 금년에 景氣下降局面이 最低點에 달한 후 91년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건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였으나 미국 경제의 예상외의 저조한 성장과 지난 8월의 페르시아만사태 등으로 인해 景氣回復이 91년 하반기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금년에는 經濟規模가 크게 늘어난 일본과 서독의 경제가 경기확대국면을 지속하고 油價上昇의 영향을 덜 받고 있어 전세계적인 景氣鈍化現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작년보다 성장률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금년에 크게 둔화된 開途圈의 성장이 내년에 회복될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의 成長鈍化幅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圈別로 보면 세계경제의 91년 성장률은 금년의 2.4%보다 더 낮은 2.3%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92년에는 2.8% 내외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先進圈經濟는 일본, 유럽경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심한 부진으로 인해 90년에 2.5%로 89년의 3.5%보다 크게 낮아진 후 91년에는 미국의 景氣不振에다 일본의 成長率鈍化가 가세, 더



속 낮아진 2.1%의 성장이 예상된다.

開途圈經濟는 금년에 라틴아메리카, 중동 등의 경기부진으로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아세안국가의 景氣好調와 南美, 중동 등의 회복에 힘입어 3.8%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는 89년에 2.5%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90년에는 內需不振과 석유가격 상승으로 0.8%의 低成長을 기록하였으며 91년 하반기부터 성장이 회복되겠으나 연간으로는 1.1%의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는 호황을 지속하고 있어 금년에는 5.5%의 매우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91년에는 設備投資의 위축으로 3.4% 정도의 성장으로 둔화되나 경기확대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西獨 經濟는 EC 統合과 統一 特需에 힘입어 금년에 3.7%의 성장이 예상되며 91년에는 자금수요의 증대로 인한 高金利基調가 성장을 제약하겠으나 3.3% 내외의 견실한 성장이 예상된다.

91년의 물가를 전망해 보면 선진국의 경우 장기간의 경기확대국면의 영향이 누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페르시아만사태로 인한 油價急騰이 物價上昇勢를 가속하여 90년에 5.0%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91년에는 油價의 진정, 각국의 金融緊縮基調의 持續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다소 낮아진 4.5% 내외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중 물가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의 금년 물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유가상승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金融緊縮緩和로 인해 物價上昇率 下落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금년에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졌으며 91년에도 성장은 둔화하나 장기간 景氣擴大의 영향으로 금년과 비슷한 상승률이 예상된다.

독일은 수요증대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추가적인金利인상이 어려워 물가상승률은 금년보다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2) 世界貿易

世界貿易量 增加率은 88·89년에는 景氣好調에 힘입어 前年比 각각 9.1%, 7.3%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90·91년에는 世界景氣鈍化로 5.8% 내외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한 성장세를 나타냈던 세계무역은 88년의 9.1%를 피크로 89년에 소폭 둔화되었으며 90·91년에도 개도국이 91년에는 內需好調를 반영, 수입신장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진국의 輸入伸張勢가 둔화되는데 따라 世界貿易量 增加率은 대체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수입물량 증가율은 89년의 8.1%에서 90·91년에는 각각 6.0%, 5.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油價暴騰의 영향으로 주요국들이 수입억제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물가불안을 우려한 金融緊縮으로 그동안 교역신장률에 큰 기여를 했던 民間設備投資의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별로 輸入物量 增加率을 전망하면 미국, 일본 등의 輸入伸張勢는 내수부진을 반영,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되나 독일은 오히려 統一景氣에 힘입어 활발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89년에 5.8% 증가했던 미국의 수입물량은 90·91년에 內需不振 특히 建設投資不振이 지속됨에 따라 産業用原資材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아 3.5% 내외의 저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輸入物量 增加率은 그동안 內需好調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나 90·91년에는 高金利 영향으로 民間設備投資가 부진할 것으로 보아 6.5%, 5.0%로 점차 낮아질 것 같다.

독일의 경우는 東獨經濟再建을 위한 資本財 및 原資材의 수입증대, 민간소비의 호조에 따른 消費財 輸入增加 등이 예상되어 90·91년에 89년의 7.1%보다 높은 8.5% 내외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 전체의 수입물량 증가율은 89년의 8.6%에서 90년에는 5.0%로 크게 낮아지나 91년에는 6.5%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0년에 개도국의 수입신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石油輸出國들의 수입신장률이 景氣好調를 반영, 전년보다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非石油開途國들의 수입신장률이 유가폭동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전년도

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91년에 수입물량이 커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유가폭등의 영향이 줄어들어 非石油 開途國들의 내수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石油輸出國, 非石油 開途國 모두 經濟開發計劃 推進에 따른 公共投資擴大計劃에 따라 관련제품의 수입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인데 특히 석유수출국들은 유가폭등에 따른 외화획득 증대로 수입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 3) 國際換率 및 金利

달러貨는 91년 중에도 일본 엔貨, 독일 마르크貨 등 주요 통화에 대해 美·日間, 美·獨逸間 실질금리의 逆轉趨勢 등을 반영해 약세를 떨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달러貨 價値는 90년 2·4분기부터 대폭하락함으로써 달러貨의 對마르크貨 환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最低時勢를 기록하고 있고, 對엔貨換率도 G-5의 플라자 合意로 달러貨가 큰 폭으로 떨어졌던 88년말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였다.

이로써 달러貨의 환율은 선진국간 貿易不均衡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대체로 균형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금년말에는 달러당 125엔, 달러당 1.47마르크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91년에도 상반기까지는 달러貨가 주요 통화에 대해 계속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부터는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의 金融緊縮基調緩和, 미 무역수지의 호전 등에 힘입어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91년말에는 엔貨에 대해 90년말 對比 약 5% 절상된 달러당 135엔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요국의 金利를 전망해 보면 미국의 政策金利는 91년중 금융시장 불안해소, 경기부양 등을 위해 0.25~0.5% 정도 추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再割引率은 油價上昇에 따른 물가불안 지속으로 상반기중 6.0%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2·4분기 이후에는 유가하락과 더불어 그동안의 잇따른 金利引上의 효과가 경제전반에 차츰 나타나면서 0.25~0.5% 정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獨逸 金利는 統獨에 따른 財政支出擴大 등으로 인해 금융긴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90년말에서 91년 1·4분기 사이에 金利가 引上될 여지가 있는 것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마르크貨 強勢에 힘입어 유가상승의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금융완화 노력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은 금리의 追加引上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展望의 示唆點

내년도 세계경제가 비록 불황에 빠지지는 않으나 성장의 最低點에 이르러 경기가 금년보다 다소 침체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대외적 여건은 다소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油價上昇에 따른 인플레이 진정을 위한 긴축정책의 지속으로 내년중 세계 각국 특히 선진제국의 內需는 대체로 금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여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 여건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蘇聯, 東歐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에도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엔貨 弱勢로 인해 일본시장은 물론 미국, EC 시장 등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전자, 섬유,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낮아져 우리의 수출이 크게 부진해 왔는데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미 달러貨에 대한 일본 엔貨 價値가 크게 절상됨에 따라 현재 우리 원貨의 엔貨에 대한 환율은 지난 연말에 비해 14~15% 정도 절하되었고 또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내년 중에는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우리 상품의 기술 및 品質競爭力 提高에도 심혈을 기울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技術開發投資를 확대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高附加價値 商品을 개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해야겠다.

아울러 韓·美間 통상마찰, EC 經濟統合, 우루과이 라운드(UR)協商 등으로 야기될 통상환경의 악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우리에게 주어진 국제무역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무역 질서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상품의 수출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 수출과 製造業에 의해 뒷받침된 건실한 經濟成長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